

호남 대표성 놓고 민주당-안철수 백병전 치열 예고

내년 지방선거 호남 정치권 요동치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반성과 혁신보다도 당권을 둘러싼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지역 민심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의 기류마저 엿보인다. 당장, 지역 민심은 새 정치의 깃발을 들고 4·24 재보선에 출마, 현실 정치에 뛰어든 안 전 교수를 주목하고 있다. 안 전 교수가 재·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민주당의 대안 세

력으로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호남의 대표성을 놓고 치열한 백병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도 호남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지역 정치권을 조망해 본다.

반성 커녕 계파싸움... 쇠신없인 지역민 등 돌려

민주당

대선 패배 4개월이 지났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민심의 매를 맞았으며 '회초리 투어'와 '민생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친노-비노, 주류-비주류로 갈려 당권을 둘러싼 가열찬(?) 계파 싸움에 지역 민심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및 최고위원 주자들의 지방 순회 연설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좀처럼 흥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후보들에게는 '위기의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기정, 이용섭 의원의 당권 도전에 지역 민

심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김한길 대세론'에 무너진다면 오히려 정치적 허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 호남 정치권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쇠신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민주당 심판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된다면 실질적인 대안 세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의 '민주당 심판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다 안철수 신당이 강력한 무소속 후보들을 흡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호남 정치권은 물론 야권의 지각변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도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서는 사실상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어 당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염두에 두

고 있는 입지자들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차선책(안철수 신당)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적 혁신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역 국회의 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대의원 경선 비중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참여를 30%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여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민심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안철수 신당과 만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위기와 안철수 신당의 부상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호남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지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광주지역 유권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선·총선 선전 했지만 지자체장 당선 “글썄요”

새누리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그동안의 대선 및 총선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기초단체장 이상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13.2%, 전남에서 10.0%, 광주에서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두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데 실

패했지만 전남과 전북에서는 성공, 새누리당이 향후 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세론에 힘입어 두자릿수 득표가 예견됐지만 광주 8.6%, 전남 9.2%에 그쳤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역시 15~16대 대선에서 광주 1~3%대, 전남 3~4%대의 득표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득표로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중선거구제인 기초의

원 선거의 경우 희망을 걸 수 있다. 또 비례대표에서 몇 석 건질 수도 있다. 나아가 현 정부가 호남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새누리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18일 “새 정부의 호남 소의 인사에 대해 지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서 지방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도 “향후 호남에 대한 인사·정책적 배려와 의미 있는 인사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재·보선 승리맨 야권 재편 가능성

'신당' 급부상

4·24 재·보선선거를 목전에 둔 18일 현재 내년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다. 그동안 호남에서 지방선거는 대부분 민주당 후보와 개별 무소속 후보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내년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물론 이것은 최근 여론조사처럼 서울 노원병 보선에서 안 후보가 승리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지지도는 안철수 후보 40.5%, 허준영 후보 24.3%였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특히 호남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열린 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호남향우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호남인들의 안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줬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을 위협할 것이라 여론조사도 이를 반영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 지지 후보에 대해 광주지역 응답자들의 37.5%가 안철수 신당 후보를, 35.8%는 민주당 후보를 각각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자체제인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현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호남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와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은 올 10월 재보선 전후를 기점으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든 정치결사체 형식으로 지방선거에 도전하든 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달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상황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비주류가 당권을 잡고 민주당을 송두리째 바꿔, '안철수'측과 같은 길을 걸어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친노(친노무연)계가 현재처럼 당의 중심에 있을 경우 안 후보 측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에서의 도전은 더욱 거셀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안 후보를 내세운 정치집단이 비록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못 내더라도 의미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을 하면서 차후 정치지형의 변화를 그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내 갈등에 지지율 '반토막'... 입지 좁아져 고민

통합진보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총선 직후, 종북 논란의 폭탄을 맞고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은 물론 싸늘한 지역 민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18.6%, 전남 14.7%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2개 의석(오병윤, 김선동)을 확보하는 등 민주당에 이어 제2당으로 부상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기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까지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종북 및 부정 경선 논란과 폭력 사태까지 빚은 당내 갈등에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현실이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지역 민심도 통합진보당 사태에 충격과 함께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도 “민주노동당으로 시작, 10년 동안 공멸여 쌓은 탐이 일거에 무너진 상황”이라며 탄식을 쏟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선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에 이념 구도 퇴색 등으

로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좁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 뿌리내린 조직적 역량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성과는 거두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도 서두르기 보다는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민심과의 거리를 좁혀간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여울한 부분도 많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일회일비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 하나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햇빛 재테크” 소용량 태양광 발전사업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주)셈에너지 GREEN P.W. 그린파워

광주총판 TEL.062.943.8804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